

연구방법론 과목의 교육내용 및 현황분석

Research Methods and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Education

박 소 연(So-yeon Park)*

〈 목 차 〉

- | | |
|-------------------|-------------------------|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4.1.2 미국 |
| 2. 선행연구 | 4.2 “연구방법론”의 정의 및 내용 분석 |
| 3. 연구방법 | 4.2.1 한국 |
| 4. 연구결과 | 4.2.2 미국 |
| 4.1 “연구방법론”의 개설현황 | 5. 결론 및 제언 |
| 4.1.1 한국 | |

초 록

한 학문분야의 연구의 질을 향상시키고, 연구를 수행하거나 비판할 수 있는 연구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연구방법론의 건실한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국내 문헌정보학 석사과정에서의 연구방법론 교육의 현황과 특성을 분석하고, 연구방법론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문헌정보학 석사과정이 개설된 국내 22개 문헌정보학과 및 도서관학과를 대상으로 연구방법론 교육의 개설현황, 특성과 동향을 분석하고, 미국 문헌정보학 석사과정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향후 연구방법론 교육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주제어 : 교육과정, 연구방법론, 계량적 연구방법, 질적 연구방법

Abstract

Research methods is an integral component of a field and plays a crucial role for the development of a field. Three areas are explored to assess research methods in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LIS) graduate programs: (1) comparison of research methods' courses across Korean LIS graduate programs; (2) content analysis of the trend of research methods education; (3) comparison of research methods' courses between the U.S. and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graduate programs.

Key Words : research methods, graduate curriculum,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ducation, quantitative research methods,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 계명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전임강사(sypark@knu.ac.kr)

· 접수일 : 2002. 5. 18 · 최초심사일 : 2002. 5. 31 · 최종심사일 : 2002. 6. 6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 학문분야의 발전과 성장은 일반적으로 그 분야의 연구에 의해 평가되며, 연구는 의미있고 독창적인 연구주제의 선정, 연구주제를 수행하기 위한 적절한 연구방법론의 선택, 연구방법의 적절한 활용, 연구결과의 기여도 등에 의해 평가된다고 할 수 있다. 이 중에서도 적절한 연구방법의 선택과 활용, 연구방법론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립이 학문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방법론이란 특정 학문의 성격에 대한 철학적 혹은 인식론적 바탕 위에서 지식의 습득방법이나 주장이 타당함을 밝히는 이론적 접근이며, 문헌정보학 연구방법론 설정의 근본 목적은 제시된 가설이나 문제점을 검증하기 위한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통하여 문헌이나 정보와 관련된 모든 현상의 관계를 기술하고 설명하기 위한 연구전략”¹⁾으로 이해될 수 있다.

최근에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급격히 변화하는 정보환경 속에서 문헌정보학 분야의 학문적 영역이 그 어느 때보다도 확대되었고, 이에 의미있고 내실있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문헌정보학 분야도 새로운 정보환경에 걸맞는 새롭고 다양한 연구과제, 이론체계, 교육과정, 교육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시기에 타학문과 차별화 될 수 있는 문헌정보학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헌정보학 분야의 연구의 질을 향상시키고, 연구를 수행하거나 비판할 수 있는 연구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연구방법론의 건실한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문헌정보학 프로그램 내에서 연구방법론 교육의 현황과 특성을 분석, 평가하고 향후 연구방법론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첫째, 국내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및 도서관학과 석사과정이 개설된 22개 대학을 대상으로 연구방법론 교육의 실태와 특성을 조사하였다. 또한 연구방법론 강의계획서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하여 연구방법론 교육의 추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둘째, 미국 ALA (American Library Association)가 인정한 문헌정보학 석사과정 프로그램(Master of Library Services) 내의 연구방법론 교육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연구방법론 교육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셋째, 위의 분석에 기초하여 연구방법론 교육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학부가 아닌 대학원 교육과정을 본 연구의 조사대상으로 한 이유는 학부제 실시 이후 전공과목 수의 대폭적인 축소로 인해 연구방법론 관련 강좌는 고급 과목으로 간주되어 학부에는 거의 개설이 안 되는 실정이며, 대학원 과정에서 연구방법론에 대한 본격적인 교육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둘째, 박사과정이 아닌 석사과정을 조사대상으로 한 이유는 박사과정이 개

1) 정동열 “연구방법론 분석에 의한 문헌정보학 이론개발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제10권, 제2호(1998), p. 23

설된 학교 수가 상대적으로 적으며, 연구방법론 과목이 일반적으로 박사과정과 석사과정의 통합과목으로 개설되기 때문이다. 셋째, 미국의 경우 비록 최근에 학부과정이 몇몇 학교에서 개설되기 시작하였지만, 문헌정보학과가 학부가 아닌 대학원 과정에서 개설되므로, 미국과 한국의 비교를 위하여 석사과정의 교육과정을 조사대상으로 선택하였다.

2. 선행연구

위의 연구주제와 관련된 국내외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국내의 경우 대학원 교과과정에서의 연구방법론 교육의 현황과 특성을 직접적으로 조사한 연구는 드물다고 할 수 있다. 대학원 교과과정에서의 연구방법론 교육의 특성이라는 주제와 간접적으로 관련된 연구들은 일정기간 동안 문헌정보학 분야의 연구동향이나 연구방법론의 추이를 분석한 연구와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을 분석한 연구로 나뉘어질 수 있다. 먼저 일정기간 동안 발표된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의 학술논문이나 단행본, 학위논문의 연구동향과 연구방법론 사용의 동향을 전반적으로 분석한 연구로는 문경민²⁾, 정동열³⁾, 조찬식⁴⁾, 최희곤⁵⁾, 정진식⁶⁾ 등의 연구를 들 수 있다.

한편 국내에서의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에 대한 연구는 1980년대 이후부터 활발히 진행되었고, 교과과정 전반에 대한 연구(정필모⁷⁾; 박혜경⁸⁾; 구분영⁹⁾; 박일종¹⁰⁾)와 교과과정에서 특정 분야의 교육에 대한 연구(한복희¹¹⁾; 최성진¹²⁾; 고영만¹³⁾)로 나뉘어질 수 있다.

미국에서 최근에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에서의 연구방법론의 특성과 위상을 분석한 연구로

2) 문경민, “문헌정보학 연구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논문. 이화여자대학교, 1993.

3) 정동열, *op. cit.*

4) 조찬식, “문헌정보학 연구 및 연구방법에 관한 고찰”,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3권, 제3호(1999), pp. 45-61.

5) 최희곤, “문헌정보학분야 연구동향 분석”, 《정보관리학회지》 제16권, 제13호(1999), pp. 138-156.

6) 정진식, “한국문헌정보학분야의 연구동향 분석 : 1996-2000”,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5권, 제3호(2001), pp. 55-78.

7) 정필모, “도서관학 교과과정의 모형화를 위한 연구”, 《도서관학보》 제4집(1983), pp. 33-75.

8) 박혜경,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의 비교연구: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논문. 이화여자대학교, 1992.

9) 구분영, “디지털정보환경에서의 문헌정보학 교육과정”, 《정보관리학회지》 제17권, 제3호(2000), pp. 93-108.

10) 박일종, “국내 문헌정보학 프로그램의 현황 및 교육과정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1권, 제2호(2000), pp. 197-221.

11) 한복희, “도서관 및 정보전문직 교육 방향에 관한 연구: 교과과정 분석을 통하여”, 《도서관학》 제11권(1984), pp. 43-73.

12) 최성진, “정보학 교육의 개혁방안 연구”, 《도서관학》 제16권(1989), pp. 111-176.

13) 고영만, “정보검색교육의 개선방안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제15권, 제3호(1998), pp. 113-132.

는 O'Connor와 Park¹⁴⁾¹⁵⁾의 연구를 들 수 있으며, 그 이전에는 이러한 연구주제를 다룬 연구가 드물며, 국내의 경우와 유사하게 대부분의 관련연구가 교과과정 전반에 대한 연구와 일정기간동안 문헌정보학 분야의 연구동향이나 연구방법론의 추이를 분석한 연구에 치중하여 왔다. 미국에서는 1960년대 중반이후로 교과과정의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으며¹⁶⁾¹⁷⁾¹⁸⁾, 오랜 기간 동안 문헌정보학 교육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었는데, 최근 Sloan¹⁹⁾이 문헌정보학 교육에 관련된 연구논문들의 광범위한 목록을 집대성하였다.

문헌정보학 연구추이와 연구방법론의 동향을 조사한 국외 연구들은 일정 기간동안 발표된 학술논문이나 학위논문들을 방법론별로 분석한 연구가 주류를 이룬다²⁰⁾²¹⁾²²⁾. 특정 주제에 관한 연구논문들의 방법론을 분석한 연구를 살펴보면, Goodall²³⁾은 영국 공공도서관에 관한 연구를 분석하였고, Callison²⁴⁾은 학교도서관 미디어에 관련된 논문에서 사용된 방법론을 분석하였고, Dimitroff²⁵⁾은 특수도서관에 관한 문헌을, Julien²⁶⁾은 정보요구와 사용에 관한 문헌에 사용된 방법론을 분석하였다. 최근에 Powell²⁷⁾은 여러 학자들이 조사한 문헌정보학 분야의 연구방법의 경향을 정리하고, 다양한 질적, 양적 연구방법론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
- 14) D. O. O'Connor & S. Park, "Crisis in LIS Research Capacity",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Vol. 23, No.2(2001), pp. 103-106.
- 15) D. O. O'Connor & S. Park, "On my mind: Research Methods as Essential Knowledge", *American Libraries*, Vol. 33, No.1(2002), p. 50.
- 16) R. D. Stuart, "Great Expectation :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ducation at the Crossroads", *Library Journal*, (1981).
- 17) H. Borko, "Trends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ducation",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Vol. 35, No.3(1984), pp. 185-193.
- 18) J. Lester, "Education in Response to Change", *Journal of Library Administration*, Vol. 18(1993), pp. 39-54.
- 19) B. Sloan, *Changes in LIS Education: a Bibliography*. Revised: January 29, 2001. [cited 2002.2.13] <<http://www.lis.uiuc.edu/~b-sloan/edbib.html>>
- 20) G. Schlachter, E. Thomison, & N. Newfield, *Library Science Dissertations, 1973-1981: an Annotated Bibliography*. Littleton, CO : Libraries Unlimited, 1997.
- 21) M. T. Kim, "Research Record", *Journal of Education for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Vol. 37(1996), pp. 376-383
- 22) B. C. Peritz, "The Methods of Library Science Research : Some Results from a Bibliographic Survey", *Library Research*, Vol. 2(1980-1981), pp. 251-268.
- 23) D. Goodall, "It ain't What You Do, It's the Way That You Do It : a Review of Public Library Research with Special Reference to Methodology", *Public Library Journal*, Vol. 11(1996), pp. 69-76.
- 24) D. Callison, "Evolution of Methods to Measure Student Information Use",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Vol. 19(1997), pp. 347-357.
- 25) A. Dimitroff, "Research for Special Libraries : a Quantitative Analysis of the Literature", *Special Libraries*, Vol. 86(1995), pp. 256-264.
- 26) H. Julien, "A Content Analysis of the Recent Information Needs and Uses Literature",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Vol. 18(1996), pp. 53-65.
- 27) R. R. Powell, "Recent Trends in Research : a Methodological Essay",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Vol. 21, No.1(1999), pp. 91-119.

특히 Powell은 최근에 새롭고 다양한 연구방법론들이 우리 분야에 점차로 도입되고 있음을 주목하였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국내외 선행연구 중 학문에 대한 본격적인 교육이 시작되는 대학원 교과과정에서의 연구방법론 교육에 대한 조사를 한 연구는 드물며, 관련연구들은 일정기간동안 발표된 논문들의 연구추이나 연구방법론에 대한 고찰을 한 연구와 교과과정 전반에 대한 연구로 구분될 수 있다.

3. 연구방법

한국 문헌정보학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연구방법론 교육의 현황과 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전국 32개 4년제 문헌정보학과 및 도서관학과 중 석사과정이 개설된 22개 대학의 대학원 요람과 교과과정을 2002년 11월 중순부터 12월 초까지 약 2주에 걸쳐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조사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각 학과 사무실에 연락하여 교과과정에 대한 정보를 재확인하였다. 또한 연구방법론 교육실태와 추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가장 최근에 개설된 연구방법론 관련 과목의 강의계획서를 수집하였다.

미국 문헌정보학 석사과정(MLS)에서 연구방법론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American Library Association(ALA)가 인정²⁸⁾ 미국과 캐나다 내 56개 문헌정보학 프로그램 중 52개 프로그램의 웹사이트에 제공된 대학원 카탈로그와 교과과정을 2002년 4월 약 2주의 기간동안 분석하였다. 연구에서 제외된 4학교의 경우, 교과과정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다. 한 기관이 복수의 석사학위를 제공할 경우, 연구의 일관성을 위하여, ALA가 인정한 학위(MLS : Master of Library Services, MLIS: Master of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만을 분석하였다.

28) 미국에서 문헌정보학과 프로그램을 개설하면 ALA의 인정(accreditation)을 받아야 하는데 (<http://www.ala.org/alaorg/oa/standard.html>), ALA가 문헌정보학과 프로그램을 평가할 때 다음 6가지 사항이 평가된다: (1)프로그램의 목적과 사명, 목표(mission, goals, objectives); (2)교과과정(curriculum); (3)교수진(faculty); (4)학생들에 대한 대우(student); (5)행정, 재정적인 지원(administration and financial support); (6)물리적 자원과 시설(physical resources and facilities). ALA의 승인을 받지 못한 대학들도 간혹 있는데 이들 대학의 졸업생들은 취업과 진학 등 여러 면에서 불이익을 당한다. 대부분의 직장들이 ALA의 인정을 받은 MLS 혹은 MLIS학위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4. 연구결과

4.1 “연구방법론”의 개설현황

4.1.1 한국

문헌정보학 및 도서관학 석사과정의 개설된 전국 22개 대학 가운데 최근에 개설된 2개 대학에서는 연구방법론 과목이 아직 한 번도 개설이 안 되었으므로 이 조사에서 제외되었다. 이 두 대학을 제외한 20개 대학 중 연구방법론과목이 필수과목으로 지정되어 이 과목을 수강해야 석사학위 취득이 가능한 대학은 6곳으로서 전체의 30퍼센트에 해당하였다. 그 외 14개 대학 중 5개 대학의 경우 연구방법론 과목이 공통과목으로 운영되어 수강이 권장되나 필수과목은 아니었다. 나머지 9개교의 경우 필수나 공통과목의 개념이 없이 연구방법론을 포함한 모든 과목이 선택과목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연구방법론이 공통이나 선택과목으로 운영되는 대학의 경우, 연구방법론 과목이 2년에 한번씩 또는 1년에 한번씩 개설되는 경우가 많았고, 개설되는 학기에는 그 과목을 수강하는 것이 강력히 권장되었다.

이는 대부분의 대학에서 연구방법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강생의 부족으로 혹은 과목을 담당할 수 있는 교수의 부족으로 연구방법론이 매 학기 필수과목으로 개설되지 않고, 공통 또는 선택과목으로 개설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한국에서는 교수가 학부와 대학원, 그리고 관련기관의 교육을 담당하여야 하나, 미국의 경우 문헌정보학 교육이 대학원 중심으로 이루어지므로, 교수들이 대학원 교육에 치중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미국에서 연구방법론이 필수가 아닌 선택과목으로 명시된 학교들의 경우 한 학기에 일반적으로 십 여개 이상의 과목이 개설되고, 연구방법론의 수강이 전적으로 학생들의 선택에 맡겨져 있는 상황이어서, 한 학기에 적은 경우 3개, 많아야 6, 7과목이 개설되는 국내 대학원의 “선택”의 의미와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연구방법론과 관련된 과목이 두 개 이상 개설된 대학이 3곳이었고, 흥미로운 점은 이중 한 대학의 경우 연구방법론이 필수과목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연구방법론과 관련된 과목이 두 과목이 개설된다는 것이다. 이 대학의 경우 “연구방법론I”에서는 연구방법론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이론, 운영, 연구설계가 다루어지고 있었고, “연구방법론II”에서는 실제적인 통계분석이 다루어지고 있었다.

4.1.2 미국

한편 미국의 경우, 조사에 포함된 52개 대학 중에서, 62%에 해당하는 32개 프로그램은 연구방법론을 필수과목으로 개설하였고, 나머지 38%인 20개 프로그램은 필수과목으로 개설하지 않았다. 흥미로운 현상은 다수의 상위권 프로그램들이 연구방법론 과목을 필수로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U.S. News & World Report²⁹⁾가 정기적으로 미국 내 대학원 프로그램들에 대한 학과별 순위를 평가하는데, 1999년 U.S. News & World Report에 의한 문헌정보학과 순위에서 상위 10위에 드는 11개 프로그램 중 5개의 프로그램만이 연구방법론을 필수과목으로 요구하였다. 동점자를 고려하여 상위 20위에 드는 24개 프로그램의 경우 절반에 해당하는 12개 프로그램만이 연구방법론을 필수과목으로 요구하였다. 곧 전체적으로는 62퍼센트에 해당하는 학과들이 연구방법론을 필수로 지정하였으나, 상위 10위, 상위 20위에 드는 학과들만을 분석하였을 경우 각각 45퍼센트와 50퍼센트에 해당하는 학과들만이 연구방법론을 필수로 지정하였다. 한국과 미국의 연구방법론 개설 현황을 비교하면 <표 1>과 같다.

<표 1> 한국과 미국의 연구방법론 개설 현황

		한국 (%)	미국 (%)
석사과정이 개설된 학교 수		22	56
조사대상 과정 수		20	52
필수과목 지정 여부	필수	6 (30)	32 (62)
	선택	14 (70)	20 (38)
개설과목 수	1과목	17 (85)	36 (69.2)
	2과목	3 (15)	13 (25)
	3과목	0 (0)	3 (5.8)

<표 1>에 나타났듯이 한국과 미국 모두 조사에 포함된 모든 대학들이 연구방법론 과목을 개설하였다. 미국의 경우 연구방법론이 필수과목으로 지정된 대학이 32곳으로서 전체의 62%에 해당되었으며, 한국의 경우 전체의 30%인 6개 대학만이 연구방법론을 필수로 지정하였다. 앞서도 언급되었듯이 그 외 14개 대학의 경우 연구방법론 과목이 공통과목이나 선택과목으로 지정되어 수강이 권장되나 필수과목은 아니었다. 이는 대부분의 대학에서 연구방법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수자원의 부족으로 혹은 수강생의 부족으로 연구방

29) US News and World Report의 문헌정보학과 대학원 순위는 다음 웹사이트에서 구할 수 있다: <http://www.usnews.com/usnews/edu/beyond/gradrank/gbinfos.htm>(cited 2002, 2, 13). 문헌정보학 분야의 순위는 1999년 자료가 가장 최근 자료이다. 법학, 의학, 경영학 등을 제외한 다른 학문들의 경우는 순위가 보통 3년에 한번씩 조사, 평가된다.

법론이 매 학기 필수과목으로 개설되지 않고, 공통과목으로 개설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연구방법론 과목이 두 과목 이상 개설된 대학이 미국의 경우 전체의 25%인 13개였으나, 한국의 경우 전체의 3곳에 불과하였다. 연구방법론 과목이 세 과목 이상 개설된 대학이 미국에는 3개교였으나, 한국의 경우 한 곳도 없었다.

미국의 경우 한국보다 많은 수의 대학들이 연구방법론을 필수로 지정하였지만, 전체 52개 대학 중 38%에 해당하는 20개 대학이 연구방법론을 필수로 지정하지 않는다는 점, 특히 상위권 대학들이 연구방법론을 필수로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최근 우려의 대상이 되어왔다³⁰⁾³¹⁾. 이러한 연구방법론에 대한 경시는 미국 내의 다른 professional school 내의 연구방법론의 위상과 큰 대조를 이룬다. 문헌정보학 프로그램과 함께 professional school로 분류되는 경영학 석사과정(MBA), 사회복지학 석사과정(MSW)의 경우 모든 대학들이 연구방법론을 핵심과목으로 지정하였고, 많은 대학들이 학생들에게 연구방법론에 대한 지식을 입학조건으로 요구하였다. 또한 뒤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겠지만, 연구방법론 관련된 과목명이나 내용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었고, 학교마다 수준의 차이가 컸다.

미국 52개 대학 중 38%에 해당하는 20개 대학이 연구방법론을 필수로 지정하지 않고, 과목명과 연구방법론 과목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에 일관성이 부족한 것은 미국에서 문헌정보학과 프로그램을 인정(accreditation)하는 기관인 ALA가 문헌정보학 프로그램을 승인 시의 기준이 매우 일반적이고, 모호하다는 점, 즉 ALA가 문헌정보학 분야의 핵심과목들을 명시하지 않고, 연구방법론 과목 개설을 필수적으로 지정하지 않는다는 데서 부분적으로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급격히 변화하는 정보환경 속에서 문헌정보학자가 학문의 핵심이 무엇인지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채 학문적인 과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4.2 “연구방법론”의 정의 및 내용 분석

4.2.1 한국

한국 교과과정에서 연구방법론과 관련된 과목명칭들과 교육내용에 있어서 비교적 일관성이 있었다. 곧 조사대상 20개 대학 중 75퍼센트에 해당되는 15개 대학에서 “문헌정보학 연구방법론”, “문헌정보학연구법”이라는 명칭으로 과목을 개설하였다. 그 외에 “도서관 및 정보학 연구방법론”, “도서관학연구방법론”, “제3세계도서관방법론”, “정보학연구와 분석방법론”, “연

30) D. O. O'Connor & S. Park (2001), *op cit*

31) D. O. O'Connor & S. Park (2002), *op cit*

구방법론”이라는 명칭으로 과목을 개설한 대학도 각 한 곳씩 있었다.

연구방법론 교육의 추이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연구방법론 강의계획서에 대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위에서도 언급되었듯이 문헌정보학 및 도서관학 석사과정 22개 대학 중 2개 대학에서는 연구방법론 과목이 아직 한 번도 개설이 안 되었고, 다른 3개 대학의 경우 최근 3년 동안 연구방법론 과목이 개설이 안되었거나, 담당교수님이 국내에 계시지 않는 등의 이유로 강의계획서를 수집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최근 3년 동안 연구방법론과목이 개설되었던 대학 17곳의 강의계획서를 중심으로 연구방법론의 교육경향이 분석되었다. 연구방법론 과목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내용을 요약하면 <표 2>와 같다.

<표 2>는 크게 과학적 탐구방법, 연구주제의 식별, 연구설계, 연구방법유형, 자료분석, 논문/연구계획서 작성법, 연구의 윤리 등의 7항목에 따른 분류를 제시하고 있으며, 연구설계와 연구방법 유형에는 각각 세부항목을 부여하였다. <표 2>의 전체적인 구성은 이두영, 김성희, 이명희³²⁾의 “문헌정보학 연구방법론”을 비롯한 연구방법론 관련 단행본을 참고하였으며, 개별 강의계획서의 분석 후 내용을 추가, 보완하였다. 연구방법론의 유형에 있어서는, Powell³³⁾도 지적하였듯이, 일치된 분류체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연구는 Powell³⁴⁾, Kim³⁵⁾, Goodall³⁶⁾, Dimitroff³⁷⁾, 정동열³⁸⁾, 조찬식³⁹⁾ 등의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연구방법론의 분류체계를 작성하되 가능한 한 포괄적이 되도록 구성하였다. 통계분석의 경우, 계량적 연구방법에 치중한 대학이 4곳이었으며 나머지 대학들의 경우 상관관계, 회귀분석, t-test 등의 구체적인 통계분석방법이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특정한 자료분석 방법을 기술통계, 추론통계 등의 항목에 포함시켰다.

조사결과 17개 대학 중 4개 대학은 전적으로 계량적 연구방법을 다루고 있었고, 1개 대학은 질적인 연구방법에 치중하고 있었고, 나머지 12개 대학은 연구방법의 개념, 절차, 분석, 활용에 대한 일반적인 개론 형식으로 우리 분야에서 주로 이용되고 있는 몇몇 연구방법들을 소개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과학적 탐구방법, 연구주제의 식별, 연구설계, 연구방법유형, 자료분석 등과 같은 연구방법의 기본적인 개념들을 다루고 있었으며, 연구방법의 종류 중 가장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유형은 서베이, 실험, 역사적 연구였으며, 그 다음으로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연구방법이 문헌조사, 면접조사방법, 관찰조사, 사례연구였다. 비교연구, 내

32) 이두영, 김성희, 이명희, 『문헌정보학 연구방법론』.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1997.

33) R. R. Powell, *op. cit.*

34) *Ibid.*

35) M. T. Kim, *op. cit.*

36) D. Goodall, *op. cit.*

37) A. Dimitroff, *op. cit.*

38) 정동열, *op. cit.*

39) 조찬식, *op. cit.*

용분석, 현장연구, 계량서지학은 네 곳의 강의계획서에 포함되어 있었고, 문화기술법, 시스템 설계, 학술운동은 각각 단지 한 대학에서만 다루어지고 있었다.

국내 연구방법론 교육에 있어서 질적인 연구방법은 계량적 연구방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처럼 연구방법론 교육에 있어서 서베이, 실험, 역사적 연구 등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은 국내의 문헌정보학 분야 연구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연구방법이 서베이, 실험, 역사적 연구라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1950년부터 1975년까지의 미국 문헌정보학 분야 연구논문들을 분석한 Peritz⁴⁰⁾는 서베이가 가장 인기있는 연구방법이고, 시스템디자인, 역사적 연구방법이 그 뒤를 이음을 발견하였다. 1973년부터 1981년까지의 문헌정보학 학위논문들을 분석한 Schlachter, Thomison, Newfield⁴¹⁾의 연구에 따르면, 학위논문에 있어서도 역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들이 서베이(조사대상의 56%), 역사적 연구방법(15%)이었다. 1986년부터 1995년까지 Public Library Journal에 실린 공공도서관 관련 연구논문들의 연구방법 추이를 분석한 Goodall⁴²⁾의 경우, 가장 많이 이용된 방법이 서베이(n=18), 설문지를 이용한 구조적 면접방법(structured interview, n=10), 문헌조사(n=7) 순이었다. 1990년부터 1994년까지의 이용자 연구의 연구방법 추이를 분석한 Julien⁴³⁾은 서베이와 면접방법이 조사대상 연구방법 중의 각각 44%와 11%, 합하여 56%만큼 사용된 것을 발견하였다. Dimitroff⁴⁴⁾는 1993년과 1994년에 출판된 특수도서관에 대한 논문들을 조사하였는데, 조사대상의 66%가 서베이를 사용하였음을 밝혀냈다.

국내의 동향도 이와 비슷한데, 단지 미국에 비해 문헌연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조찬식⁴⁵⁾은 1993년부터 1997년까지 한국문헌정보학회지와 한국정보관리학회지에 실린 논문들을 대상으로 연구방법별 동향을 조사하였는데, 전체 423편의 논문 중에서 문헌연구가 26.5%를 차지하였고, 사례(17.7%), 시스템 분석/설계(17.3%), 서베이(10.9%)가 뒤를 이었다. 문경민⁴⁶⁾은 1950년대 말부터 1991년까지의 석사 및 박사학위논문과 도서관학, 서지학연구, 정보관리학회지에 발표된 논문들을 분석하였는데, 조사결과 학회지에서는 주로 문헌연구, 학위논문에서는 주로 서베이 연구를 집중적으로 이용하고 있었으며, 특히 교육학 분야에서는 서베이와 서지학적 방법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959년부터 1992년까지의 석박사학위논문을 분석한 김길자⁴⁷⁾의 연구도 문헌조사법과 서베이가 문헌정보학

40) B. C. Peritz, *op. cit.*

41) G. Schlachter, E. Thomison & N. Newfield, *op. cit.*

42) D. Goodall, *op. cit.*

43) H. Julien, *op. cit.*

44) A. Dimitroff, *op. cit.*

45) 조찬식, *op. cit.*

46) 문경민, *op. cit.*

47) 김길자, *op. cit.*

분야 학위논문에서 주로 이용되는 방법임을 분석하였다. 정동열⁴⁸⁾의 연구에 따르면, 1992년 이전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서지학연구, 정보관리학회지의 3개 학술지에 실린 논문들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서지학적 방법, 서베이 순이었다. 이처럼 미국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연구방법은 서베이, 면접, 실험, 역사적 연구방법 등이고, 국내의 경우는 문헌연구, 서베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대학원 연구방법론 교육이 서베이, 실험, 면접, 역사적 연구에 치중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현실을 어느 정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문헌연구가 독립된 연구방법으로 비중을 크게 차지하지 않는 이유는 “연구설계”나 “연구계획의 수립”의 과정으로 “문헌연구”가 이해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비록 문헌연구, 서베이, 면접, 실험 등이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방법들이긴 하나, 최근 들어 특히 미국의 경우 인터넷의 등장 이후, 연구주제들이 다양화되고, 새롭고 다양한 연구방법들이 시도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 우리 분야에 적용되고 소개되고 있는 비교적 계량적인 연구방법들로는 트랜잭션 로그 분석(transaction log analysis), 프로토콜 분석(protocol analysis), sequential analysis, discrete choice analysis 등이 있으며, 질적인 연구방법으로는 현상학적 방법론(phenomenological methods), 해석학(hermeneutics), 기호학(semiotics), 담론분석(discourse analysis) 등이 있다⁴⁹⁾. 그러나, 국내 연구방법론 과목 소개와 강의계획서 검토결과 이러한 방법론들이 국내에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문의 발전과 변화를 위해서는 전통적인 연구방법들과 더불어 새롭고 다양한 방법들을 소개하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 2> 한국과 미국의 연구방법론 내용 대비표⁵⁰⁾

단위 : 대학(%)

	한국	미국
사회과학 연구/과학적 연구/과학적 탐구방법	16 (94)	12 (60)
연구주제 선정, 식별	9 (53)	12 (60)
연구설계 (연구계획의 수립)	13 (76)	16 (80)
타당성/신뢰도	6 (35)	7 (35)
가설의 설정	11 (65)	12 (60)
표본추출	10 (59)	15 (75)
조작화/변인측정/척도	11 (65)	12 (60)

48) 정동열, *op cit.*

49) R. R. Powell, *op cit.*

50) 한국의 경우 조사대상 과정 수가 17개이고, 미국은 조사대상 과정 수가 20개이다.

	한국	미국
연구방법유형 선정		
서베이	11 (65)	17 (85)
실험	11 (65)	15 (75)
역사적연구	10 (59)	10 (50)
면접조사방법	5 (29)	8 (40)
문화기술법	1 (6)	2 (10)
관찰조사	5 (29)	9 (45)
문헌조사	7 (41)	3 (15)
비교연구	4 (23)	0
내용분석	4 (23)	9 (45)
평가연구	3 (18)	6 (30)
계량서지학	4 (23)	6 (30)
사례연구	5 (29)	9 (45)
시스템설계	2 (12)	1 (5)
현장연구/현장운동/학술운동	4 (23)	0
델파이 방법 (Delphi studies)	0	2 (10)
포커스 그룹 조사	0	6 (30)
필드 조사 (field study, 현지연구)	0	7 (35)
테크니칼 연구	0	1 (5)
해체주의	0	1 (5)
자료분석		
기술통계	8 (47)	12 (60)
추론통계	10 (59)	12 (60)
전산분석 (SPSS/SAS)	4 (23)	5 (25)
연구계획서 작성법/ 논문작성법	11 (65)	12 (60)
윤리 (ethics)	2 (12)	15 (75)

4.2.2 미국

미국의 52개 대학의 대학원 요람, 카탈로그, 해당과목의 강의계획서의 분석결과 연구방법론과 관련된 과목명들이 다양하며 비교적 통일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곧 "Problems in Library and Information Studies"(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Greensboro), "Elements of Research"(University of Oklahoma), "User and Use Studies"(Rutgers University)의 경우 과목명만 보아서는 연구방법론 관련과목인지 알기가 어려웠다.

연구방법론에서 다루어지는 내용들도 매우 다양하였는데, 몇몇 학교들은 두 개 이상의 연구방법론 과목들을 개설하고, 계량적 연구방법과 질적 연구방법을 심층적으로 다루는 데 반해, 어떤 학교들은 문헌정보학 개론 과목에서 방법론에 관련된 주제들을 간단히 다루는 데 그쳤다.

또한 미국의 다른 사회과학 분야들과는 달리 연구방법론이나 통계학에 대한 지식이 대학원 입학 시 필수조건이 아니었다. 전체적인 연구방법론 교육과정에서 질적인 방법론이 차지하는 비중은 계량적 연구방법보다 적었다.

위에서 분석된 한국의 연구방법론 교육의 동향과 비교를 목적으로 이 조사에 포함된 미국 52개 대학 중 웹 상에서 강의계획서 수집이 가능한 20개 대학의 강의계획서를 분석하였다. 담당교수 파악의 어려움, 신속한 커뮤니케이션의 어려움, 강의계획서의 부재 등으로 인해 전체 52개 대학의 절반에 못 미치는 20개 대학의 강의계획서만이 수집되었으나, 비교의 지표를 제시하여 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조사결과 대부분의 미국 대학의 연구방법론 과목이 계량적 방법론과 질적 방법론의 기본 개념을 소개하는 개론의 형식이었으며, 과학적 탐구방법, 연구주제의 식별, 연구설계, 표본추출 등의 개념들을 다루고 있었다. 연구방법의 종류 중 가장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유형은 서베이, 실험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연구방법론이 역사적 연구, 관찰조사, 사례연구, 내용분석, 면접조사방법, 필드 연구 등이다. 평가연구, 계량서지학, 포커스 그룹 조사도 약 30%의 대학들에서 다루어지고 있었다. 델파이 방법, 포커스 그룹 조사, 필드 조사, 테크니컬 연구, 해체주의 등은 국내에서는 다루어지지 않는 방법론들이었다. 연구방법론 강의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한국 연구방법론 교육과 미국 교육의 몇 가지 차이를 비교하자면, 국내 대학원 교육이 계량적 연구방법론에 치중한 반면, 미국 연구방법론 교육에서는 계량적 연구방법과 질적 연구방법이 비교적 균형있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례연구, 필드 조사, 포커스 그룹 연구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보다 다양한 연구방법론이 미국 연구방법론 교육에서 다루어지고 있었다. 둘째, 미국 연구방법론 교육에 있어서 연구의 윤리나 정치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도 미국과 국내 연구방법론 교육의 차이였다. 셋째, 한국의 경우 연구계획서보다는 논문작성법에 치중한 반면, 미국은 많은 대학이 연구계획서(research proposal) 작성을 강의계획서에 명시하고 있었다.

5. 결론 및 제언

모든 학문분야의 필수적인 요소는 연구방법론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이의 적절한 적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특히 연구 중심을 지향하는 대학원 교육에서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국내 문헌정보학과 석사과정의 경우 모든 대학들이 석사학위논문을 요구하므로, 독립적으로 연구를 설계하고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더욱 절실하다.

연구방법론의 견실한 교육이 양질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의 육성과 교육에 공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본 연구는 국내 22개 문헌정보학과 및 도서관학과 석사과정을 대상으로 연구방법론 교육의 실태와 특성을 조사, 평가하고, 연구방법론 강의계획서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하여 연구방법론 교육의 추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미국 ALA(American Library Association)가 인정한 문헌정보학 석사과정 교육과정에서 연구방법론의 현황과의 비교를 통하여 국내 연구방법론 교육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미국의 경우, 이 연구에 포함된 52개 프로그램 중 32개 프로그램만이 연구방법론을 필수과목으로 개설하고 있고, 특히 상위 20위에 드는 24개 프로그램의 경우 절반에 해당되는 12개 프로그램만이 연구방법론을 필수과목으로 요구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조사에 포함된 20개 대학 중 연구방법론과목이 필수과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대학은 6곳으로서 전체의 30퍼센트에 해당한다. 그 외 14개 대학의 경우 연구방법론 과목이 공통과목이나 선택과목으로 지정되어 수강이 권장되거나 필수과목은 아니었다. 미국의 교과과정의 경우 연구방법론과 관련된 과목명칭들이 다양하게 불리어지고 과목명에도 통일성이 부족한데 비하여, 한국 교과과정의 연구방법론과 관련된 과목명칭들에는 일관성이 있다. 또한 연구방법론 관련 과목의 내용에 있어서도, 미국의 경우 일관성이 없고 학교별 수준의 차이가 큰 데 비해, 우리의 경우 대부분의 대학에서 일반적인 개론형식으로 강의를 개설하고, 연구방법론과 설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과 우리 분야에서 주로 많이 쓰이는 방법들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질적인 연구방법은 계량적 연구방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되었듯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정보환경에서 타학문과 차별화 될 수 있는 문헌정보학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헌정보학 분야의 연구의 질을 향상시키고, 연구를 수행하거나 비판할 수 있는 연구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연구방법론의 견실한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미국과 한국 문헌정보학 대학원의 문헌정보학 실태와 특성을 분석한 후, 이 연구는 국내 연구방법론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방법론의 중요성의 재인식과 핵심과목 지정이 중요하다. 필수과목이나 공통과목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의 경우, 연구방법론 과목을 필수나 공통과목으로 지정하는 것이 중요

하다. 필수/선택, 공통/선택 구분 없이 모든 과목이 선택과목으로 운영되는 대학의 경우, 연구방법론 관련 과목을 정기적으로 개설하고, 학생들에게 수강을 권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계량적 연구방법과 질적 연구방법의 균형 있는 교육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원 연구방법론 교육이 전통적이고 계량적인 연구방법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학문의 성장과 발전, 다양화를 위해서는 연구의 기초를 배우기 시작하는 대학원생들에게 계량적 연구방법과 질적 연구방법의 균형 있는 교육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지금까지 우리의 연구방법론 교육에서 별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새롭고 다양한 주제와 방법들을 도입, 소개할 필요가 있다. Powell⁵¹⁾은 최근 문헌정보학 연구방법론의 추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최근 문헌정보학 연구는 점차적으로 질적인 연구방법의 사용이 증가하고, 여러 분야에 걸친 연구(multidisciplinary research)가 증가하고,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과 정보연구(information studies)에 관련된 연구가 증가하고, 다수의 연구방법론을 이용하는 연구가 증가하고, 응용연구가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동시에 전통적인 연구방법론과 자료분석 방법, 이론적이고 기초적인 연구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과 정보기술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문헌정보학의 연구대상들도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있는 현실이다. 연구주제와 연구대상의 다양화와 복잡화는 상응하는 연구방법의 다양화를 필요로 한다. 하나의 연구방법론 과목 내에서 전통적 연구방법과 새로운 연구방법을 다루고, 계량적 연구방법과 질적 연구방법을 균형있게 다루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연구방법을 심층적으로 다룰 수 있는 연구방법론 과목을 두 개 이상 개설할 것을 제안한다. 국내에도 연구방법론 관련 과목을 두 개 이상 개설한 대학이 세 곳이 있는데, 이 중 한 대학의 경우 “연구방법론1”에서는 연구방법론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다루고 있고, “연구방법론2”에서는 계량적인 연구방법론을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이 대학의 교과과정이 일종의 모형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곧 연구방법론 관련 과목을 둘 이상 개설할 경우, 한 과목에서는 계량적 연구방법을 두 번째 과목에서는 질적인 연구방법을 전담하거나, 첫 번째 과목이 연구설계와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다루고 두 번째 과목에서는 계량적 또는 질적 연구방법을 좀더 심층적으로 다루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경영학(MBA), 사회복지학 프로그램들이 자신의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연구방법론 과목을 개발하였듯이 우리도 문헌정보학 학문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독자적이고 일관성 있는 연구방법론 과목을 개발할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국내 문헌정보학 석사과정에서의 연구방법론 교육의 현황과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문헌정보학과 및 도서관학과 석사과정이 개설된 22개 대학의 대학원 요람과 교과과

51) Powell, R. R., *op. cit.*, p.112.

정, 강의계획서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추후과제로는 연구방법론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들과 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층적 면접,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연구방법론 교육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고영만. “정보검색교육의 개선방안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제15권, 제3호(1998). pp. 113-132.
- 구본영. “디지털정보환경에서의 문헌정보학 교육과정”, 《정보관리학회지》 제17권, 제3호(2000). pp. 93-108.
- 김길자. “우리나라 석박사 학위논문에서 나타난 문헌정보학의 연구동향 분석”, 미간행 석사논문. 숙명여자대학교, 1995.
- 김지선.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의 비교, 분석”, 미간행 석사논문. 충남대학교, 1997.
- 문경민. “문헌정보학 연구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논문. 이화여자대학교, 1993.
- 박일중. “국내 문헌정보학 프로그램의 현황 및 교육과정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1권, 제2호(2000). pp. 197-221.
- 박혜경.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의 비교연구 :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논문. 이화여자대학교, 1992.
- 이두영, 김성희, 이명희. 『문헌정보학 연구방법론』.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1997.
- 정동열. “연구방법론 분석에 의한 문헌정보학 이론개발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제10권, 제2호(1993). pp. 23-42.
- 정진식. “한국문헌정보학분야의 연구동향 분석 : 1996-2000”,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5권, 제3호(2001). pp. 55-78.
- 정필모. “도서관학 교과과정의 모형화를 위한 연구”, 《도서관학보》 제4집(1983). pp. 33-75.
- 조찬식. “문헌정보학 연구 및 연구방법에 관한 고찰”,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3권, 제3호(1999). pp. 45-61.
- 최희곤. “문헌정보학분야 연구동향 분석”, 《정보관리학회지》 제16권, 제13호(1999). pp. 138-156.
- 최성진. “정보학 교육의 개혁방안 연구”, 《도서관학》 제16권(1989). pp. 111-176.
- 한복희. “도서관 및 정보전문직 교육 방향에 관한 연구 : 교과과정 분석을 통하여”, 《도서관학》 제11권(1984). pp. 43-73.

- Borko, H. "Trends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ducation",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Vol. 35, No.3(1984). pp. 185-193.
- Callison, D. "Evolution of Methods to Measure Student Information Use",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Vol. 19(1997). pp. 347-357.
- Dimitroff, A. "Research for Special Libraries : a Quantitative Analysis of the Literature", *Special Libraries*, Vol. 86(1995). pp. 256-264.
- Goodall, D. "It ain't What You Do, It's the Way That You Do It : a Review of Public Library Research with Special Reference to Methodology", *Public Library Journal*, Vol. 11(1996). pp. 69-76.
- Julien, H. "A Content Analysis of the Recent Information Needs and Uses Literature",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Vol. 18(1996). pp. 53-65.
- Kim, M. T. "Research Record", *Journal of Education for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Vol. 37(1996). pp. 376-383
- Lester, J. "Education in Response to Change", *Journal of Library Administration*, Vol. 18(1993). pp. 39-54.
- O'Connor, D. O. & Park, S. "On My Mind : Research Methods as Essential Knowledge", *American Libraries*, Vol. 33, No. 1(2002). p. 50.
- O'Connor, D. O., & Park, S. "Crisis in LIS Research Capacity",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Vol. 23, No. 2(2001). pp. 103-106.
- Peritz, B. C. "The Methods of Library Science Research : Some Results from a Bibliographic Survey", *Library Research*, Vol. 2(1980-1981). pp. 251-268.
- Powell, R. R. "Recent Trends in Research : a Methodological Essay",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Vol. 21, No. 1(1999). pp. 91-119.
- Schlachter, G., Thomison, E., & Newfield, N. *Library Science Dissertations, 1973-1981 : an Annotated Bibliography*. Littleton, CO : Libraries Unlimited, 1997.
- Sloan, B. (2001). *Changes in LIS Education : a Bibliography*. Revised : January 29, 2001. [cited 2002.2.13] <<http://www.lis.uiuc.edu/~b-sloan/edbib.html>>
- Stueart, R. D. "Great Expectation :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ducation at the Crossroads", *Library Journal*, (1981).
- US News and World Reports' 1999 Ranking of LIS Programs*. [cited 2002.2.13] <<http://www.usnews.com/usnews/edu/beyond/gradrank/gbinfos.htm>>